

丙子胡亂 金化 栢田戰鬪 考察*

권 순 진**

1. 머리말
2. 金化 栢田 戰鬪址의 位置
3. 金化 栢田 戰鬪의 戰鬪樣相과 意義
4. 맺음말

1. 머리말

丙子胡亂은 조선과 후금 사이 ‘兄弟의 盟約’으로 끝난 丁卯胡亂(1627) 이후 세력이 강성해지며 국호를 바꾼 청나라가 1636년(인조14) 12월 8일 13만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하여 1637년(인조15) 1월 30일 군신관계인 ‘丁丑和約’을 체결하며 종식된 전쟁이다.¹⁾

開戰 初부터 다수의 기병을 보유한 청군의 빠른 진격 속도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조선은 결국 남한산성으로 入保하여 농성하며

* 이 글은 2012년 병자호란 김화 백전대첩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丙子胡亂史』, 1986.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게 된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강화도의 함락, 主和主戰派의 대립, 장기전으로 인한 군량부족 등으로 인해 결국 三田渡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국가위란의 기간 중에 위기에 처한 宗廟社稷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도에서 모집된 勤王軍이 남한산성으로 모여들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평안도 관찰사 洪命壽와 평안도 병마절도사 柳琳에 의해 치러진 철원 “金化 栢田戰鬪”²⁾는 병자호란의 중반부인 1637년 1월 28일 남한산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안도지역 근왕군이 남하하면서 김화의 백전일원에서 벌인 대규모 전투로 龍仁 光教山戰鬪³⁾와 함께 병자호란 2대 승전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전투가 병자호란 당시 승전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전투지역의 위치비정과 전투양상을 파악하는데 다소 제한적이었다.⁴⁾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성과도 대부분 기존에 연구된 백전전투지의 위치를 현재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탐동/탐곡으로 비정한 내용을 답습하여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⁵⁾ 백전전투지의 정확한 위치와

2) 이 전투에 대해서는 ‘백동’전투/‘탐동’전투 또는 ‘金化戰鬪’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김화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김화지구전투’와 동일 명칭이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고자 본고에서는 ‘김화 백전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기존에 보고된 백동/탐동전투지는 圖上에 표시된 지명을 가지고 위치를 비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실제 戰場과는 차이가 있다.

3) 1637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라병사 김준룡이 광교산에서 청나라 장수 양굴리[楊古利]가 이끄는 청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丙子胡亂史』, 1986) 참조.

4) 전투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장인 관계로 곳곳에 미확인 지뢰지대와 불발탄 등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또한 민통선 안쪽에 위치하고 일부는 비무장지대내에 속해 있다.

5) 지금까지의 김화 백전전투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丙子胡亂史』, 198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海東名將傳』, 1987.

柳承宙,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史叢』 55, 2002.

柳承宙, 『忠壯公 柳琳將軍 實錄』, 한들출판사, 2006.

전투양상에 대한 연구는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과 유재춘⁶⁾을 제외하면 아직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 고증, 둘째, 어떻게 조선군이 당대 최고의 기병인 청군을 맞아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당시의 전투양상을 軍事史的 觀點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연구된 자료와 문헌기록 및 금석문 자료를 심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에 등장하는 ‘백전’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헌기록과 전투지역의 실제 일치여부를 파악하였다. 특히 실제 현장에 대한 지표조사는 당시 전투전적지 및 전투양상 파악에 제한이 많은 금석문자료와 문헌기록의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 이 전투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향후 이 전투전적지에 대한 戰蹟地化 작업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金化 栢田 戰鬪址의 位置

가. 김화 백전의 지리적 위치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해당되며,

柳根永, 『忠壯公 柳琳將軍 評傳-병자호란의 잊혀진 영웅-』, 한들출판사, 2006.

6) 육군사관학교와 유재춘은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백전전투지를 후술할 김화현의 남쪽일원으로 각각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백전전투지의 대략적인 위치비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陸軍士官學校·鐵原郡, 『鐵原 城山城 - 地表調査報告書-』, 2000; 柳在春, 「丙子胡亂時 金化戰鬪와 戰骨塚考」, 『史學研究』 제63집, 2001).

수리좌표로 북위 38° 17' 29", 동경 127° 27' 06" 일원에 해당된다. 철원군에 위치한 김화⁷⁾는 고구려의 夫如郡에 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곳에서 고구려 관련 유적이 확인된 바 없다.⁸⁾ 이후 6세기 중반 신라가 이곳을 경유하여 함경도까지 진출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김화현의 북쪽에 자리한 성산성이며,⁹⁾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 漢州의 富平郡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1018년(현종 9)에 김화로 개칭되면서 朔方道에 편입되어 東州에 속해 있었고, 1143년(인종 21)에 다시 金化縣이 되었다. 김화는 경기북부는 물론 회양·안변, 화천·춘천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인 관계로 1217년(고종4) 거란 침입때 격전지가 되었으며, 1253年 몽고군의 제4차 침입 때에는 그들에게 함락되기도 하였다. 壬辰倭亂時에는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근·현대 들어서 김화 주변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이곳의 전략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즉, 43번 국도와 47번 국도가 김화를 관통하며, 56번 국도는 화천을 거쳐 춘천, 홍천 방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5번 국도는 김화를 거쳐 평강·개성, 서북 쪽으로는 평강에서 철령을 넘어 안변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국전쟁 당시는 철의 삼각지대에 포함 된 전략적 요충지였고, 북동쪽으로는 유명한 ‘저격능선전투’와

7) 현재의 김화읍이 아닌 일제 강점기까지의 김화 즉, 구 김화현을 가리킨다.

8) 다만 이곳 철원일원의 지리적 위치를 통해 볼 때 당시 고구려 세력의 남하루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많다. 이러한 고고학적 물질자료로는 춘천 일원의 고구려계석실분과 원주 일원의 고구려유적 발굴에서 보여진다.

9) 성산성 외에 철원군 관내에서 조사된 동주산성, 할미산성에서도 6세기대 신라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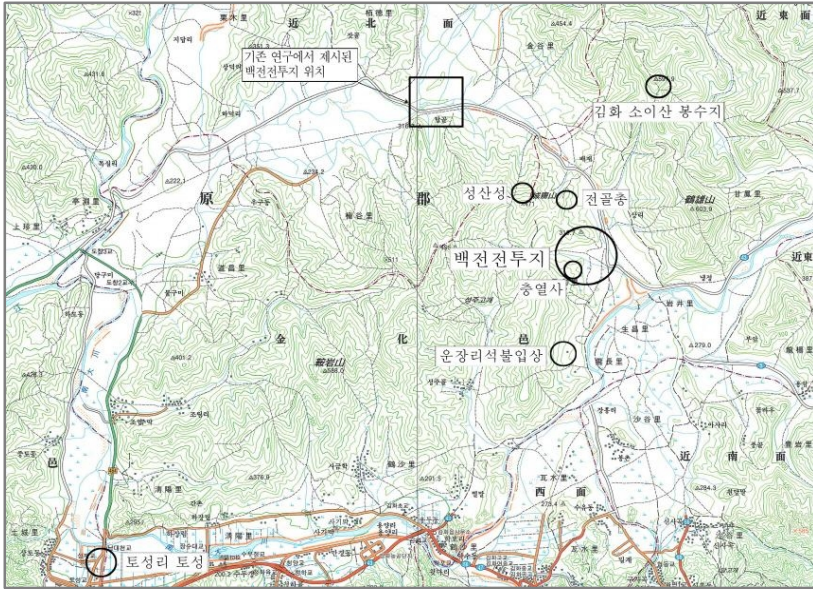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6.

陸軍士官學校 · 鐵原郡 『鐵原 城山城 地表調査報告書』

이재·강성문·권순진, 『철원의 성곽과 봉수』, 2006.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軍史研究』 第135輯, 陸軍軍史研究所, 2013.

‘금성전투’가 치러진 곳이기도 하다.¹⁰⁾



〈지도 1〉 백전전투지의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철원 김화 지도)

한편, 본고의 주 대상인 홍명구군과 유림군이 방어진지를 편성한 백전일대의 지형을 살펴보면 먼저 전투지역은 서쪽의 안암산에서 동쪽으로 불규칙하게 뻗어내린 능선이 북동쪽으로 이어지다 전투지 부근에서 좌우로 능선이 다시 이어지고 이 능선의 안쪽은 넓은 곡간부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북동-남서방향의 43번도로와 북서-남동방향의 5번도로가 교차하는 곳의 서쪽에 해당되며, 학사리에서 김화읍내로 들어오는 성주고개 접근로가 남서쪽에 위치한다. 남쪽에는 천연 자연장애물로 이용이 가능한 남대천이 북동-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백전전투지 주변에는 초기국가 단계에 조성된

1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전투사-7 백마고지전투』, 198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전투사-13 금성전투』, 198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전투사-14 저격능선 전투』, 1988.

것으로 추정되는 갈말읍 토성리토성,¹¹⁾ 삼국시대에 初築된 성산성, 백전전투의 지휘관이었던 홍명구와 유림장군을 모신 충렬사와 당시 전투의 희생자를 매장한 전골총 등 다수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¹²⁾(지도 1)

이와 같이 김화 백전전투가 치러진 구김화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해 항상 전장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던 곳이다.

나. 문헌기록과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백전전투지의 위치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와 관련된 주된 사료¹³⁾는 당시 전투를 지휘한 홍명구 신도비문¹⁴⁾과 유림의 신도비문¹⁵⁾을 포함한 각종 문헌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약간씩 상이함으로 인해 당시의 전투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¹⁶⁾

11) 후술하겠지만 토성리토성은 기록에 의하면 청군의 집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12) 江原大學校博物館, 『鐵原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6.

13) 병자호란 당시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를 참고해야 하나 당시의 기록이 극도로 소략하여 이들 사료만으로 당시의 제대로 된 전투양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홍명구 신도비문, 유림 신도비문을 포함하여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宋時烈的 『宋子大全』 卷 136, 雜著 「記金化戰場事實」; 朴泰輔의 『定齋集』 卷 4, 「記金化栢田之戰」; 李景奭의 『白軒集』 卷45, 『精忠碑銘』; 尹鏞의 『白湖全書』 卷34, 雜著 「楓岳錄」; 『練藜室記述』; 『金化縣邑誌』 등이며, 국외자료로는 『太宗文皇帝實錄』을 참고하였다. 이외에 조선후기 지리서 등을 활용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송시열과 박태보는 김화 백전전투를 직접 지근거리에서 목격한 당시 김화현의 官奴 유계홍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는데, 이 기록이 유림 신도비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당시의 전투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4) 金尙憲,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15)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16) 일반적으로 신도비의 내용은 대부분 주인공이 사망한 이후에 기록된다. 따라서 당시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윤색되고 각색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논할 홍명구와 유림의 신도비에서는 전투지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며, 구체적으로 적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김화 백전전투지의 위치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실제 지표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비교하여 백전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편찬된 기록을 제외하고 백전전투에 대해 최초로 위치비정 및 전투양상을 파악한 기록은 國防部戰事編纂研究所에서 발간한 『丙子胡亂史』¹⁷⁾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김화 백전전투의 위치를 현재 비무장지대내의 철원군 근북면 백덕리 소재의 栢洞과 塔洞으로 비정하고 있다(지도 2, 사진 1, 도면 1). 그러나 이는 제한된 문헌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단순히 지도상에 “백동”과 “탑동”이라는 지명이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내린 결론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결과는 백전전투지가 앞서 언급한 비무장지대 일원이 아닌 구김화읍의 남쪽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⁸⁾ 즉, 홍명구와 유림의 神道碑文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김화현의 남쪽 즉, 김화 관아가 있는 곳의 남쪽 塔谷¹⁹⁾에 진을 쳤다고 기록²⁰⁾하고 있으며, 18세기 중반에 발간된 『輿地圖書』의 기록을

1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5~201쪽,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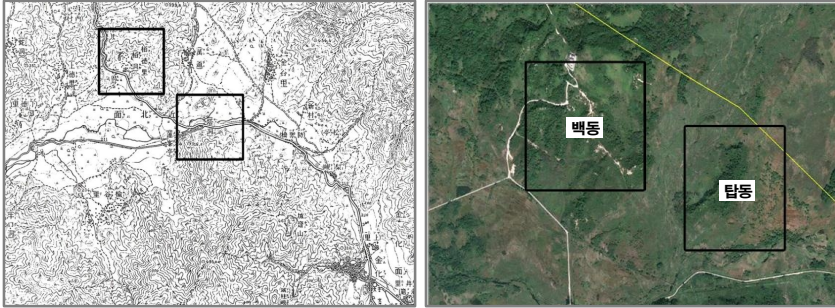
18) 柳在春, 앞의 논문, 2001.

19) 지도상에 표시된 허다한 지명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표시된 지명을 가지고 전적으로 비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고증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柳在春, 앞의 논문, 2001, 79쪽).

한편 기록상에 홍명구와 유림은 김화현의 남쪽 “塔谷”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진을 쳤다고 나온다. 보통 “塔谷”이라는 지명은 이곳에 과거 사찰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부속물로 탑이 존재하여 후대에 전세되어진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현재 충렬사에서 남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서 운장리석불입상이 있는데 그부근에 “삼신사지”라는 절터가 있다.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 사찰의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운장리석불입상이 고려양식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이 사지는 창건연대가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볼 때 백전전투지의 “탑곡”이라 불리는 곳은 이 삼신사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광범위하게 이 일대가 탑곡으로 불리었을 가능성도 있다.

20)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公計欲同入據縣北山城洪公不可又曰賊衆我寡必合兩軍庶可當也洪公又不可引其兵先陣于縣南塔谷公曰地勢夷下易於受敵不若移高洪公又不可但憂其陣後行疎公(중략)自陣于其左栢田之阜阜三面陡

근거로 백수봉²¹⁾ 일대를 전투지로 언급하고 있다.



〈지도 2〉 백동/탑동의 위치(일제시대 지형도) 〈사진 1〉 백동/탑동 위성사진(출처: 구글어스)

필자 또한 구김화현의 남쪽 백수봉 일원으로 보는데 이의가 없다. 그 근거로는 앞서 언급한 자료외에 『宋子大全』,²²⁾ 『淸陰集』²³⁾에서도 동일하게 백전전투지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宋子大全』에 수록된 「記金化戰場事實」의 기록을 보면 송시열이 김화에 들러 홍명구의 祠宇을 배알하고 이어 戰場에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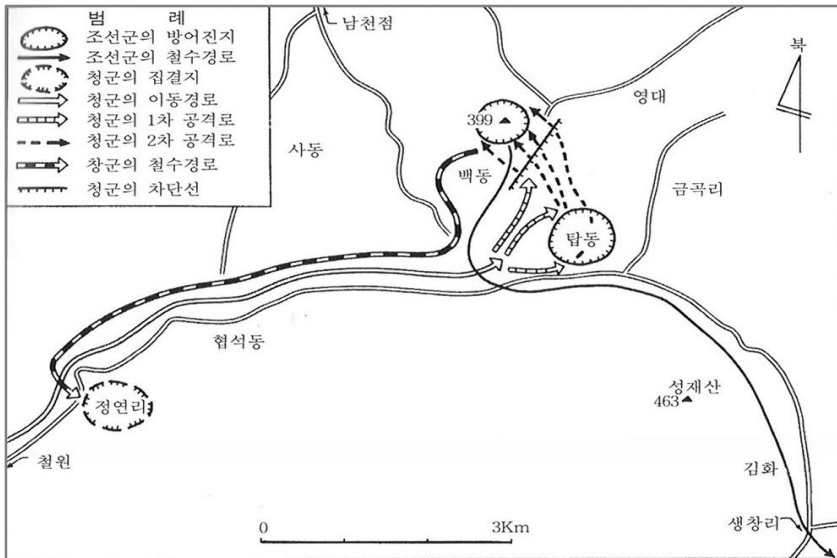
絶一面連山亦中斷如峰腰…”(홍공과 계획하기를 현북의 산성에 함께 들어가 응거하자고 하니 홍공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공은 또,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반드시 양 군을 합하여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 홍공이 또 옳지 않다고 하고 자기의 병사를 끌고 현남의 탑곡에 먼저 진지를 구축하였다. 공은 “지세가 낮아서 적의 공격을 받기가 쉬우니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홍공은 또 옳지 않다고 하며 단지 진지의 후면이 영성한 것만 걱정하므로 공이 휘하 이백 명을 나누어 주며 모자라는 곳을 보충하라고 하고 자신은 좌편 백전의 언덕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중략)스스로 그 왼쪽 栢田의 언덕에 진을 쳤다. 이 언덕은 삼면이 두절되고 한 면만 산과 연결되었으며 또한 가운데가 끊겨 벌의 허리와 같았다).

21) 『輿地圖書』, 江原道 金化 山川 栢樹峯. “在縣南一里 三中山落脈 邑人前府使張思俊好種樹嘗植栢數千株於縣南山 茂爲栢林 故名焉”.

22)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 송시열(1607~1689)의 시문집으로, 1787년(정조 11)에 간행되었다. 『송자대전』은 운관본 『우암집』의 본집과 별집, 『경례문답』 부록, 연보 등과 황강본을 대본으로 하여 이를 교정, 첨삭하고 『주자대전』의 편차방식에 따라 엮은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상헌(1570년~1652)의 시문집으로 40권 14책. 목판본. 1671년(현종 12)경 저자가 직접 編定한 초고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1861년(철종 12) 그의 종10세손 世均에 의해 刊板이 보판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때의 일을 당시의 官奴였던 劉戒弘²⁴⁾에게 물었는데, 답하기를 “丁丑年(1637, 인조15) 정월 어느 날 平安道の 監司와 兵使 두 군대가 읍내에 와서 묵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가 客舍의 서남쪽 산기슭에 陣을 쳤는데 양진이 나란히 진을 치면서도 서로 連하지는 않았습니다.”²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도면 1〉 백동/탑동 전투 요도(『丙子胡亂史』, 200쪽, 1986에서 전재.)

또한 『淸陰集』에는 “(중략)이에 곧바로 군사를 고을 남쪽 栢田山으로 옮기면서(중략)”²⁶⁾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외에 전투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자료는 아니나 尹鑄의 『白湖全書』²⁷⁾에는

24)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에는 “繼弘”으로 기록되어 있다.
 25) 『宋子大全』 卷136, 雜著 「記金化戰場事實」, “…丁丑正月日. 平安監司兵使兩軍來宿於邑內. 某日監司結陣於客舍西南之山麓. 兩陣相竝而不相…”.
 26)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卽移軍縣南栢田山…”.
 27) 『白湖全書』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인 白湖 尹鑄(1617~80)의 시문집으로 30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7년 진주에서 8세손 신환이 간행했다. 남인 정치세력을 주도하며 현실 정치를 적극 개혁하고자 했던 저자의 현실인식과 정치이념·개혁론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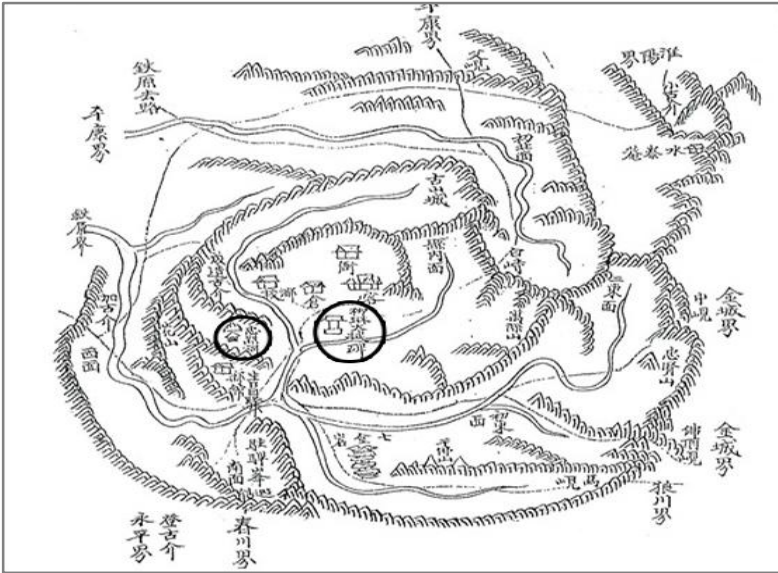
“金化를 향해 출발하여 오다가 시냇가에서 쉬고는 금화 고을을 지나는데 앞길에서 바라보니 아름답리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앞에 碑閣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홍명구가 殉義한 곳이라고 하였다. 말에서 내려 읽어 보니, “平安道巡察使洪命耆忠烈碑”라고 써어 있었다.”²⁸⁾라 하고 있는데, 윤희가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김화부근을 지나면서 아름답리 소나무 숲(栢田)과 홍명구 충렬비를 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조선후기에 편찬된 지방지도인 『海東地圖』 『廣輿圖』 『輿地圖』 등에도 김화현의 남쪽 인접한 곳에 忠烈祠²⁹⁾와 柳琳大捷碑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지도 3) 이외에 『練藜室記述』과 『金化縣邑誌』에 백전전투지의 위치가 현의 남쪽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렇듯 모든 기록에서 백전전투지 위치는 기준에 연구된 비무장지대내의 백동과 탑동이 아니 구김화현의 남쪽 일원으로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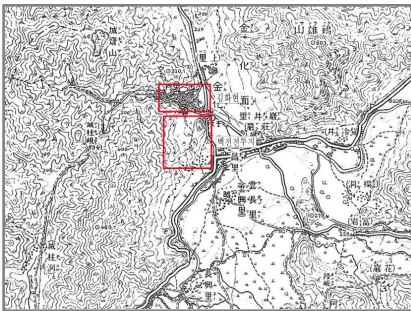
28) 尹鐸, 『白湖全書』 卷34, 雜著 「楓岳錄」.

29) 忠烈祠는 丙子胡亂 당시 김화에서 큰 전공을 올린 洪命耆와 柳琳 將軍을 모신 사당으로, 孝宗 1年(1650)에 건립하여 忠烈公 洪명구를 配享하였고, 孝宗 3年(1652)에 忠烈祠로 賜額되었다. 『江原道誌』에 의하면 그 후로 重修한 기록이 전하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940년에는 김화유림의 합의로 유림 장군을 같이 忠렬사에 配享하였다.

30) 『練藜室記述』 卷26, 仁祖條 고사본말에 邑治의 東南方 1里지점에 동그랗게 오뚝 솟은 栢樹峰이 있다. 백수봉이라는 이름의 由來는 客觀을 신축한 張廉의 아버지인 前江陵府使 張思俊이 “나무심기를 즐겨하여 일찍이 여기에 잣나무 수천그루를 심었는데, 그것이 무성해져 잣나무숲을 이뤘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金化縣邑誌』(全)山川條에도 “栢樹峰은 縣의 남쪽 1리 지점에 있는데 邑人인 前府使 張思俊이 나무심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잣나무 수천그루를 현의 남산에 심었는데 무성하여 잣나무 숲(栢林)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丙子에 평안병사 류림이 駐陣하여 勝捷한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도 3〉『海東地圖』에서의 김화현과 총렬사 / 유림대첩비 위치



〈지도 4〉 김화현과 백전전투지 위치
(일제시대 지형도)



〈사진 2〉 김화현과 백전전투지 위치
(출처: 구글어스)

한편, 백전전투지 위치를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도 문헌 기록에 보이는 유사한 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구김화현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되는 곳에 해발 238m 높이의 봉우리가 솟아 있다. 이곳의 전체적인 지형을 살펴보면 이 봉우리 남쪽으로 능선이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능선의 중간 부분이 약간 완만하게 들어갔다
다가 다시 올라온다. 전투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
현재는 지형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그러나 『藥泉集』의 「統制使
柳公神道碑銘」에 보이는 “스스로 그 왼쪽 栢田의 언덕에 진을 쳤
다. 이 언덕은 삼면이 두절되고 한 면만 산과 연결되었으며 또한 가
운데가 끊겨 벌의 허리와 같았다”³¹⁾라고 기술하고 있어 현재의 백
수봉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형태와 설명 등이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다(사진 2,3). 또한 백수봉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부
의 폭은 계측결과 최소 80m에서 최대 100m 내외이며, 길이는
700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서쪽은 급경사와 완경사가 반복되면서
서 남쪽으로 이어지며, 동쪽도 급경사와 완경사가 반복되면서 남쪽
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백수봉은 능선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제외하
고 三面은 人馬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며, 이러한 지형은 청
의 강력한 기병전술에 대비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는 데는 더 없이
좋은 지형이다. 현재 능선 내부에는 서쪽면만 군 교통호와 참호가
조성되어 있고 백수봉 능선의 서쪽은 남대천이 천연의 垓字를 형성
하고 있고 그 주변은 대부분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백수봉 능선의 동쪽은 ‘U’자 형태의 완만한 계곡을 이루고 있으
며(사진 6), 이 계곡의 동서방향의 폭은 230~250m이며, 남북방
향의 길이는 650~700m 가량이다. 계곡 내부는 논과 밭으로 경작
되고 있다. 그 맞은편에 홍명구가 진을 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선
이 위치한다. 이 능선의 말단부는 서쪽 해발 400m 내외의 북동-
남서 방향으로 뺀은 능선의 남동쪽으로 이어진 곳에 해당된다. 이
곳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밭으로 경작
되고 있다(사진2, 4). 즉, 『宋子大全』, 「記金化戰場事實」에 “客舍의

31)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自陣于其左栢田之阜阜三面陡絶一面連山亦中斷如蜂腰...”.

서남쪽 산기슭에 陣을 쳤는데 兩陣이 나란히 진을 치면서도 서로 連하지는 않았습니다.”³²⁾라는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백수봉 능선 맞은편 현재 충렬사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능선 일원이 홍명구군의 방어진였을 가능성이 높다. 후술하겠지만, 전투가 끝난 후 홍명구의 시신을 수습한 곳도 현재의 충렬사인근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홍명구군이 방어진지를 편성한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방어배치를 고려해 볼 때 두 진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至近距離에서 서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 또한 기록상에 청군의 후방기습공격의 기동로로 추정되는 성주고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 고개는 鶴沙里에서 김화읍으로 가는 옛 고갯길로 가장 높은 곳이 해발 341m이다. 단순 수치상으로 기동이 불리한 險路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답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고개 정상부만 일부 경사가 급하며, 나머지는 모두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형도에도 城柱峴으로 도식되어 있으며, 읍내리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해당된다(지도 4, 사진2, 5). 이 성주고개 또한 기록에 전하는 청의 기병이 홍명구군의 진지 후방을 기습공격한 기동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기존의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와 현지 지형조건 등으로 볼 때 기존 비무장지대내 백동과 탑동은 문헌기록들과 위치상 맞지 않으며, 현재 충렬사가 위치한 능선 말단부와 동쪽의 백수봉 능선 및 현재 인삼밭과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계곡부, 읍내리 일원이 백전전투의 실제 전투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丙子胡亂史』에 적기된 ‘백동전투’와 ‘탑동전투’의 기록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이격되어 벌어진 전투가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전투가

32) 『宋子大全』卷136, 雜著「記金化戰場事實」, “...某日監司結陣於客舍西南之山麓. 兩陣相竝而不相...”.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인해 전투명은 ‘김화 백전전투’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3〉 백수봉능선(유림진지)
전경(서→동)



〈사진 4〉 백수봉 서쪽 능선(홍명구 진지)
전경(남동→북서)



〈사진 5〉 성주고개 전경(북→남)



〈사진 6〉 백전 전투지 계곡부(남→북)

3. 金化 栢田 戰鬪의 戰鬪樣相과 意義

가. 김화 백전전투의 전개과정 전투전 상황

1) 전투전 상황

가)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부대이동과 집결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西北都元帥 金自點은 평안감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유림에게 傳令하여 군사를 이끌고 경기도의 迷原(지금의 양평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평양 인근 慈母山城에 있던 감사 홍명구는 먼저 군사를 이끌고 江東으로 이동하였고, 安州城을 방어 하던 병사 유림은 寧邊府使 李浚을 불러 安州兵營을 지키게 한 뒤 군병 5,000명³³⁾을 거느리고 강동에서 감사와 회합하였는데, 홍명구가 거느린 군사는 3,000명이라 전한다.³⁴⁾ 강동에서 회합한 홍명구와 유림군은 신계를 거쳐 1월 26일 김화에 도착하였다.³⁵⁾

근왕군이 도착한 김화는 계속되는 청군의 노략질로 마을 전체가 텅비어 있었고, 당시 현령이었던 李徽祚는 몇몇의 小吏와 함께 근남면 잠곡리 계곡속에 피신한 상황이었다.³⁶⁾ 이런 가운데 근왕군은 김화에 도착하면서 청군 수백명을 베고 포로가 된 남녀 수백 명과 가축 300여 마리를 빼앗았다고 한다.³⁷⁾

한편 근왕군이 김화에 입성하며 집결지를 편성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곧 홍명구의 군사는 鴛鴦陳³⁸⁾으로 행군하였고, 유림의 군사는

33) 李景奭, 『白軒集』 卷45, 『精忠碑銘』.

34) 『仁祖實錄』 卷34, 仁祖 15年 1月 28日.

35) 기록에 보이지는 않으나 홍명구와 유림군외에 인근의 김화현민들도 擧兵하여 이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36)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 “...隨縣監李徽祚. 入縣南幞頭山巒谷以避兵...”.

37) 『淸陰集』 卷 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斬數百級. 奪俘獲男婦數百人. 畜三百餘頭...” 그러나 南九萬 撰, 『統制使柳公神道碑文』에는 수십 명의 수급을 베고 사람과 가축을 빼앗아서 장졸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8) 원양진은 조선후기에 사용되었던 진법의 일종으로 중국 명나라 장수인 척계광이 왜구를 상대하기 위하여 발명해낸 진법이다. 구성은 대장 1명 등패수 2명, 낭선수 2명 장창수 4명당과 2명, 화병(취사병) 1명 도합 12명으로 구성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원양진은 만약 전투도중 12명의 부대원 중 단 한사람이라도 전사하고 패배를 할 경우 원양진 분대의 나머지 생존자들도 모조리 참수했다. 따라서 원양진을 이루고 있는 병사들은 죽기살기로 싸워야 했다. 병자호란시 청나라는 기병을 이용한 기동전술을 썼었고 인조는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해서 농성을 했기 때문에 원양진같은 전술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졌다. 특히 원양진은 단병접전에 능한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법이기에 때문에 청의 기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인조반정 후 조정에서

이보다 많았는데 행군할 때 圓陣³⁹⁾을 취했지만 머물때는 防營을 만들었다. 두 군사는 현에 이르러 적과 조우하여 나아갈 수 없었다.⁴⁰⁾ 그러나 縣에는 저장된 곡식으로 군사를 먹일 수 있었고, 현의 남쪽 높은 언덕 아래에는 井川이 있어 가히 筍營할만하여 마침내 留陣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宋子大全』의 「記金化戰場事實」에도 “平安道の 監司와 兵使 두 군대가 읍내에 와서 묵었다”⁴¹⁾는 기록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때 청군의 일부가 먼저 김화현에 도착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었으며, 이후 근왕군이 김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의 선발대 일부 병력과 소규모 교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헌기록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홍명구군과 유림군은 김화현에 도착전 몇차례 청군과 소규모 接戰이 있었으며, 집결지는 김화현 일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 5)

나) 청군의 부대이동과 집결지

한편 평안도 근왕병이 김화현에 도착할 무렵 청나라의 만주·몽고 팔기병⁴²⁾ 또한 김화현으로 진출하고 있었다.⁴³⁾ 청 태종은 1월 22일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훈련 자체를 못하게 하고 지휘관을 자주 교체하여 해당지역은 물론 지휘병력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임지를 옮겨야 했다.

39) 오행진(五行陣)의 하나로 둥글게 진을 배치하는 진법이다. 오행진에는 원진을 포함하여 방진(方陣), 곡진(曲陣), 직진(直陣), 예진(銳陣)이 있다.

40)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 “...洪監司軍可千餘。以鴛鴦陣行。柳兵使軍較多。行爲圓陣。止爲方營。兩軍至縣。遇賊不得進。縣有積穀可館。縣南有高岡。下有井泉可以筍營。遂留壁...” 이 내용을 참고하면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최초 계획은 김화에서 지금의 43번도로나 47번도로를 이용하여 남한 산성으로 가려 하였으나, 청군과의 조우로 인해 백전전투 후 마현을 넘어 화천-춘천-가평방면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1) 『宋子大全』 卷136, 雜著 「記金化戰場事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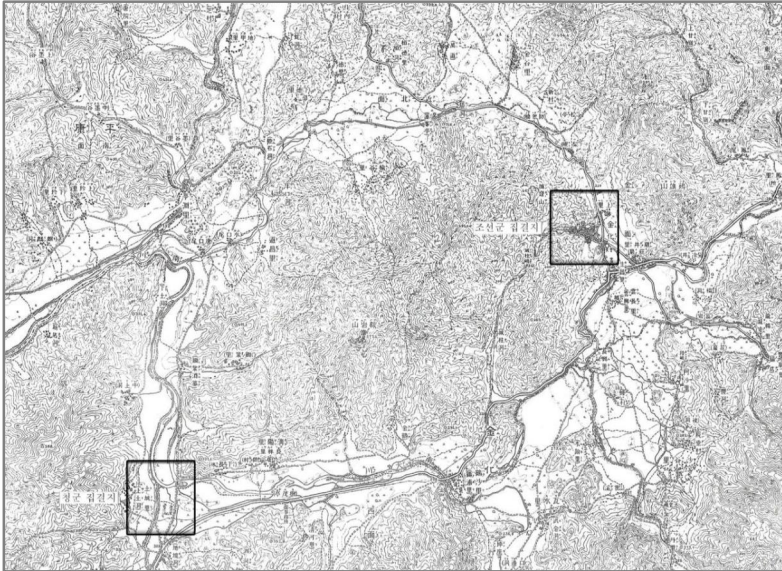
42) 팔기는 중국 대륙을 점령한 마지막 기마민족인 만주족의 힘이 자존심이었다. 팔기(정황기·정백기·정홍기·정람기·양황기·양백기·양홍기·양람기)의 위력은 당대 아시아 최강이었고, 청이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팔기는 만주족이 17세기 초부터 설치한 씨족제에 입각한 군사·행정체도로 여덟 종류의 기에 의하여 편성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

和碩睿親王 多爾袞이 강화도를 함락하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많은 군사를 남한산성에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청 태종은 함경도에 散居하고 있던 瓦爾喀⁴⁴⁾을 토벌하기 위하여 蒙古衙門承政 尼堪과 甲喇章京 季思哈(吉舍哈), 牛泉章京 葉克書로 하여금 每旗당 甲士 10명씩을 수하에 두어서 外藩 科爾沁, 扎魯特, 敖漢, 奈曼 등 몽고 諸 부락의 군사를 이끌고 가게 하였다.⁴⁵⁾ 이때에 蒙古軍 중 남한산성에서 돌아오던 군사가 함경도로 북상하려고 김화현 부근에 이르러 멈춰 현의 남쪽 30리 지점 土城⁴⁶⁾ 들판에 진을

다. 이 제도하에 있던 사람들을 旗人이라고 했다. 이들은 각 개인의 전투력과 무장이 뛰어났다. 특히 팔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마대는 화살은 물론 화승총의 탄환도 통겨내는 견고한 갑옷으로 중무장했다.

- 43) 앞선 기록에 의하면 조선군이 김화현이 진출하기전 청군의 진초부대는 이미 김화현과 그 일원에 미리 진출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4) 瓦爾喀部는 동해여진(혹은 야인여진)의 일부를 이루었던 부족으로 우수리강 이동지역 즉, 지금의 연해주 지방에 거주하였는데, 이들의 거주지역은 함경도와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중 일부는 조선에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병자호란은 청태종이 명나라 본토로 진출하기에 앞서 후방의 반청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행위였다. 청태종이 반청세력으로 지목한 대상은 조선을 위시하여 東江鎮의 명나라 都督 심세괴군과 조선에 살고있는 와이객이었지만 압록강변의 읍민들도 평정할 대상으로 여겼다. 조선에 거주하는 와이객은 청나라에 항복하지 않는 오랑캐들이며, 압록강변의 읍민들은 청의 내부사정에 밝은데다 수시로 도강하여 사단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이에 청 태종은 이들 반청세력이 있는 한 명나라 정복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 태종은 조선의 항복을 받아 복속시키고 여세를 몰아 동강진의 명군과 조선내지의 오랑캐인 와이객을 토벌하려 하였으며, 조선 국경을 넘자마자 강변의 읍들로부터 평정할 심산이었다(柳承宙,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史叢』 55, 2002, 389~390쪽).
- 45) 『太宗文皇帝實錄』 卷33, 崇德 2年 1月 癸亥(23日) “…癸亥遣外藩科爾沁扎魯特敖漢奈曼諸部落兵出威鏡道往征瓦爾喀地方命蒙古衙門承政尼堪甲喇章京季思哈牛泉章京葉克書率每旗甲士十人導之以行…”
청태종은 강화도의 함락, 근왕군과 의병들의 연이은 패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많은 병력이 남한산성을 포위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에 위협이 되는 함경도 일대의 瓦爾喀에 대한 토벌을 지시하고 일부 병력을 함경도 방면으로 이동시켰다. 청군이 함경도로 이동하려면 김화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로 청군이 김화를 지나가기전 평안도 근왕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곳에서 평안도 근왕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 46) 현재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일원에 해당되며, 초기국가단계에 토성이 잔존하

쳤는데 검은 갑옷들이 땅을 뒤덮었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⁴⁷⁾ 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수의 철기 병과 보병, 조선인 포로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 5)



〈지도 5〉 조선군과 청군의 집결지(일제시대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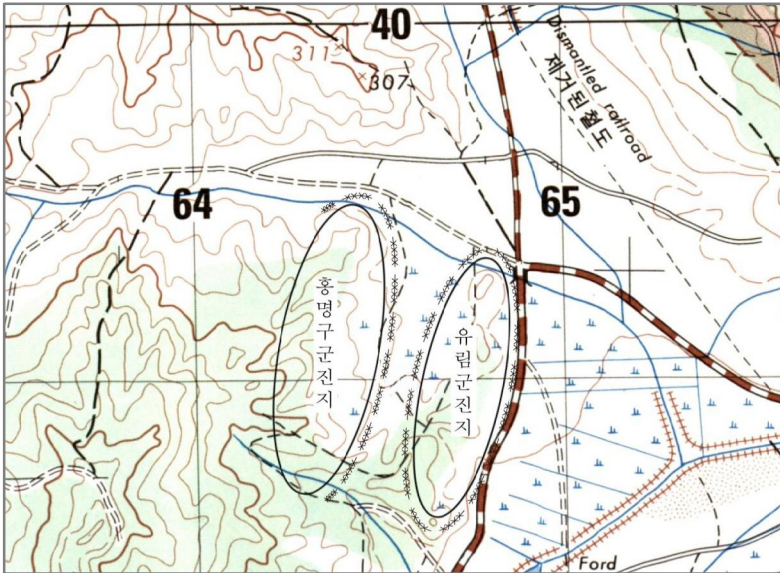
나.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방어배치

김화 백전전투는 전투자체에 대한 작전계획 또는 전투상황도 등이 없어 당시의 방어배치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명구와 유림은 모두 김화현의 남쪽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군의 기동전술을 감안한다면 邑治의 북쪽 城山城이나 人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진지를

고 있다.

47)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 “...時蒙古之自南漢歸者。將由咸鏡道渡江而北。至縣止。於縣南三十里。土城之野。玄甲蔽地。不知其數...”.

편성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지도 6> 홍명구와 유림군의 방어배치 모식도(출처: 군사지도 “오성산”)

집결지 편성 후 척후병으로부터 적이 십리밖에 진을 쳤다는 보고를 받자 홍명구와 방어계획을 의논하기를 현 북쪽의 산성에 함께 들어가 웅거하고자 하니, 홍명구는 옳지 않다고 하였다. 유림은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반드시 양군을 합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홍명구는 옳지 않다고 하고 자신의 병사를 이끌고 현 남쪽의 塔谷에 먼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에 유림이 지세가 낮아서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우니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으나 홍명구는 또한 옳지 않다고 하여 단지 진지의 후면이 영성한 것만을 걱정하니 유림이 휘하의 병사 200여 명을 나누어 주며 모자라는 곳을 보충하라고 하고 자신은 왼쪽의 栢田 언덕에 진지를 구축하였다.⁴⁸⁾ 이렇듯 홍명구는 邑治의 서남쪽 구릉에 방어진지를

48) 南九萬, 『藥泉集』「統制使柳公神道碑文」“…與洪公計欲同入據縣北山城。洪公不

구축함에 따라 유림은 그 좌편인 동남쪽 백수봉 즉, 栢田에 포진하였으며, 각기 전방으로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木柵을 설치하였다.⁴⁹⁾ 이때 兩陣간의 거리는 수백보라고 하기도 하고 10武도 안된다고도 하였다.⁵⁰⁾

한편 송시열의 「記金化戰場事實」에도 당시 홍명구과 유림군 양진이 나란히 진을 쳐서 서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전방에서의 공격만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후방으로부터 산을 통하여 급습해 오자 졸지에 한쪽 陣이 꺾멸되게 된 것이다.⁵¹⁾ 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홍명구는 청의 전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리한 방어배치를 하였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제 군사운용에 있어서 유림이 홍명구보다 매우 노련한 무장이었다. 유림은 1603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사적 긴장이 팽팽히 감도는 17세기 초반에 지방의 수령·수사를 지낸 인물이다. 반면 홍명구는 문과출신으로 중앙의 淸要職을 두루 거쳐 관찰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러나 김화전투에서 홍명구가 김화현의 북쪽 성산성에서 방어를 하자는 유림의 제안을 물리친 것은 戰術에 어두워서라기보다는 이미 평안도에서 벌어진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즉, 산성에 入保할 경우 청군이 공격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나라 병력을 분산시킨다고하는 전략⁵²⁾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을

可。又曰賊衆我寡。必合兩軍。庶可當也。洪公又不可。引其兵先陣于縣南塔谷。公曰地勢夷下。易於受敵。不若移高。洪公又不可。但憂其陣後行疏。公分送麾下二百人。以補其缺。自陣于其左栢田之阜。阜三面陡絕。一面連山。亦中斷如蜂腰。依林木布兵設柵爲固…”。

49)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에 “…自山右布陣。首尾無隙。令兵使從山左對布如右…”라는 내용을 볼 때 양군은 방어간격을 상당히 조밀하게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50) 李景奭, 『白軒集』卷45, (碑) 『精忠碑銘』.

51) 宋時烈, 『宋子大全』卷136, 「記金化戰場事實」.

52) 金尙憲 『淸陰集』 卷25, 「議政府左議政月沙李文忠公神道碑銘」에 “더구나 우리 군사들이 이곳에 있으면 적들은 반드시 군사를 나누어 와서 싸울 것이므로 전적으로 남한산성을 향하여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역시 한가지 계책이다”

수도 있다. 또한 홍명구의 입장에서는 산성에 입보하여 수세적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決死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전투를 전개하여 청나라 군세를 분산시키려 하였다. 즉, 開戰初期 평안도 방어에서 입보농성의 경험은 이미 의미가 없음을 알고 능선을 등지고 결사항전의 방어배치를 함으로써 죽음으로써 전투에 임하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겠다.⁵³⁾ 유립 또한 성산성으로 입보하여 좀더 강력한 방어를 할 수 있었으나 홍명구의 결사항전의 전투의지에 부합하여 최대한 방어에 유리한 곳에 진지를 편성하고 지근거리에서 홍명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어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지도 6)

다. 전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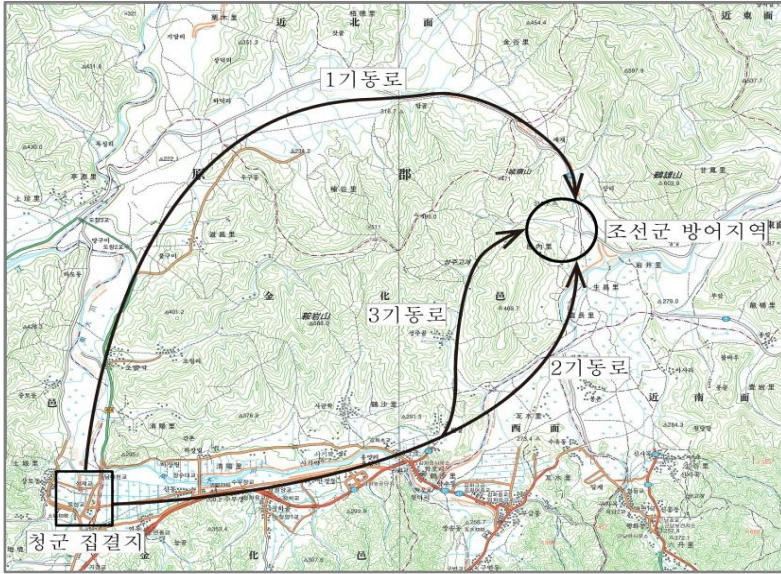
기록에 의하면 김화 백전전투는 1월 28일 하루동안 벌어진 전투였다. 청군의 공격에 대비해 백전일원에 방어배치를 완료한 조선군은 청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군은 김화현 읍치의 서남쪽 30여 리 떨어진 토성리에 주둔해 있다가 1월 28일 노약자와 포로들만 집결지에 남기고 조선군이 방어하는 백전일원으로 기동하였다. 기동간 청군은 모두 3개의 기동로를 이용하여 백전으로 접근하였는데,⁵⁴⁾ 한 갈래 길은 동쪽 산을 따라 내려왔고, 한 갈래 길은 대로를 따라 왔는데 나란히 전진하다가 앞 들판에 이르자 두 갈래의 적군이 서로 손을 잡으니 마치 옷깃을 여미는 듯 하였다. 또 한 갈래는 산의 서쪽을 따라 홍명구 진영의 뒤편으로 치달았다고 기록

라는 기록으로 볼 때 최초부터 근왕군의 임무는 남한산성에 집중되어 있는 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公奮曰。君父在難。分當效死。我志已決。更勿復言。況我軍在此。賊必分兵來戰。勿專向南漢。此亦一計也…”)

53) 柳在春, 앞의 논문, 2001, 77~78쪽에서 재인용.

5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전전투가 일어난 시점은 1월 28일로 한겨울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동로상의 하천 등은 모두 얼어붙어서 청군이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었을 것이다.

하고 있다.⁵⁵⁾(지도 7)



〈지도 7〉 청군의 기동로(철원군지도)

또한 “어느 날(1월 28일) 해가 막 돋을 때 賊이 그 앞에다 진을 치고, 군사를 잠복시켜 兩陣의 뒷산으로 올라갔으나, 兩陳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직 앞쪽만을 수비하였습니다. 드디어 賊騎가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충돌하여 내려오더니, 한 부대는 우리 양진의 사이를 횡단하고, 한 부대는 우리 감사의 진을 곧바로 침범하였습니다.⁵⁶⁾ 흰 칼날이 번쩍거리며 잠깐 동안 접전이 벌어진 끝에

55) 朴泰輔, 『定齋集』卷4, 「記金化栢田之戰」, “… 三道發軍 一道由東山下 一道由大路並進 至前野 兩枝相拱 若合襟然 一道由山西 疾移洪監司陣後…” 이를 현재의 지명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 번째는 김화 북방 현 비무장지대를 이용한 기동로로 토성리→도창리→유곡리→금곡리→백진, 두 번째 기동로는 현재 43번도를 이용한 토성리→청양리→학포리→생창리→백진, 세 번째는 토성리→청양리→학사리→성주고개→백진으로 접근하는 기동로를 상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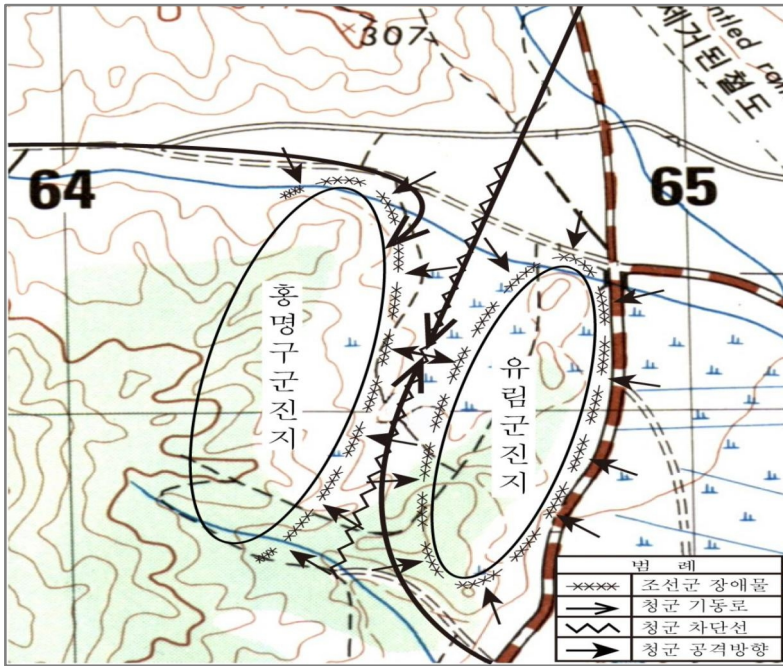
56) 朴泰輔의 『定齋集』, 「記金化栢田之戰」, “…山西伏兵 見賊猝至 急歸報 未及而賊已踰山 以鐵騎馳下峻坂掩我軍…” 이 기록들을 참고할 때 청군이 홍명구군을 기습한 기동로는 성주고개 기동로일 가능성이 높다.

아군은 크게 패하였고 賊은 아군을 뒤쫓아 가면서 창·칼로 마구 찌었는데 그러고 한참 만에 싸움이 끝났습니다. 유림은 먼저 이미 측백나무를 꺾어 꽃아 柵을 만들었는데 그 울 밖에 있는 前營은 이미 처음에 짓밟혔습니다. 감사의 남은 군대가 적과 서로 섞여서 울 밖에 이르자, 병사의 포와 화살이 난발하여 적과 아군이 함께 섬멸되었습니다. 이때 해는 벌써 未時(오후 1~3시)가 되었습니다. 적이 또 병사의 진을 향해 돌진하여 곧장 울 밖 10여 步 거리에 도달하자, 병사의 진에서 수많은 砲를 일제히 발사하니, 적은 일시에 비로 쓴 듯 하나도 남김없이 섬멸되었습니다.”⁵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전투양상의 핵심은 적절한 방어진형과 목책의 설치로 청이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적의 기병이 최대한 지근거리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일제사격을 가하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위급한 전장의 상황이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지휘관의 냉철함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다음날 날이 밝을 무렵에 적이 먼저 오른쪽 진영의 앞을 침범하여, 전진과 후퇴를 두세 차례 하였다. 얼마 후 수천 명의 오랑캐 기병이 뒷산에서 내려와 압도해서 폭풍우처럼 빠르게 두 진영의 사이를 차단하여 서로 구원해 주지 못하게 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오른쪽 진영이 이미 무너져서 홍공이 전사하였다.”⁵⁸⁾

57) 宋時烈, 『宋子大全』, 「記金化戰場事實」, “... 某日日初出。賊結陣於前。而潛師以登於兩陣之後嶽。兩陣不覺。而惟前是備。賊騎大呼衝突而下。一枝橫截兩陣之間。一枝直犯監司之陣。白刃閃鑠。揮擣須臾。而我軍大潰。賊追逐亂斫。食頃而盡。兵使先已斫倒柏樹以爲柵。其前營之在柵外者已躡於初。監司餘兵。與賊相雜。突至柵外。兵使之砲矢亂發。賊與我軍俱殲焉...”

58) 『淸陰集』 卷25, 「平安道觀察使南寧君洪公神道碑銘」, “...候吏報。西南塵起蔽天...”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홍명구군과 유림군은 주변의 고지에서 청에 대한 감시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홍명구와 유림은 성주고개 방향의 기동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방어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림이 홍명구군의 방어진지 보강을 위해 자기의 군졸 200여 명을 나누어 홍명구 진영에 보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다만 기습공격을 감행한 청의 철기병들의 수적 우세로 인해 후방이 돌파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도 8〉 김화 백전전투 모식도(출처: 군사지도 “오성산”)

적이 승세를 타고 공의 진영을 향해 달려오자 오른쪽 진영의 패잔병이 적과 함께 서로 밟히면서 들어왔다. 前營의 장수 具賢俊이 전사하였으며 진영 내부가 놀라고 소요하여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공이 높은 곳에다 말을 세우고 큰소리로 호령하기를 “내 이곳에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 하니, 장병들이 비로소 늘어서서 사력을 다해 싸웠다. 이곳은 지형이 아군은 굽어보고 저들은 우러러보며, 또 잣나무 숲이 뺨뺨하여 오랑캐 기병들이 돌격할 수가 없었고, 화살도 대부분 나무에 맞아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 군대가 이를 이용하여 틈을 타서 砲를 쏘았는데 탄환 한 발을 쏠 때마다 두세 명의 적을 관통하니 적이 조금 후퇴하였다. 공이 다시 부대를 정돈하고 진영을 가지런히 한 다음 軍衆에 명령하기를 “화살과 탄환이 많지 않으니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적이 우리 진영을 향해

수십 보 이내로 접근하면 내가 깃발을 휘두를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깃발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일제히 발사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참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적이 군대를 나누어 번갈아 진격하였으나 그때마다 모두 죽이니 시체가 城柵에 가득히 쌓였다. 해가 저물 무렵 적이 온 진영의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진격하였는데, 백마탄 장수가 상하로 달리면서 지휘하였다. 유림은 10여 명의 병졸을 뽑아서 몰래 목책 밖에 넘어가 있다가 일제히 포를 발사하게 하여 그를 죽이니, 그는 과연 신분이 높은 적의 장수였다. 그러나 종일토록 고전하여 병졸들이 매우 지쳤으므로 혹 후미에서 도망가는 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유림은 명하여 풍악을 울려 승전을 알리는 소리를 내어 병졸들을 격려하니 사기가 다시 진작되었다. 적은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비로소 물러갔다.⁵⁹⁾

앞의 내용에서 보듯이 청군은 최초에는 두 개의 기동로를 이용하여 백전으로 공격하여 조선군의 양진을 차단하고 고착견제시킨 후 성주고개 기동로를 이용하여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청의 전면 접전과 후방 기습 전술의 사용은 경상 좌병사 허완의 雙嶺戰鬪, 忠淸監司 鄭世規와 兵使 李義培의 險川戰鬪, 原州營將 權正吉의 黔丹山戰鬪⁶⁰⁾ 등에서 사용되었던 전술이다. 위의 전투들은 조선 근왕군이 모두 청의 기습공격과 우회기동에 의해 패배한 전투인 점을

59)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翌日質明。賊先犯右陣之前。進退者數三。俄而數千騎自後山馳下而壓之。疾若風雨。衝截兩陣之間。使不得相救。一晷之頃。右陣已潰。洪公死之。賊乘勝向公陣。右陣敗卒與賊相蹂躪而入。前營將具賢俊死之。陣中驚擾離次。公立馬高處。大呼曰我在此無動。將士始剋立致死力。地形既我俯彼仰。而柏林且密。虜騎不得突。矢亦多著樹不及人。我兵馮之。從其隙發砲。一丸輒貫數三人。賊少退。公復妮隊整陣。令軍中曰矢丸無多。不可浪費。賊到陣前數十步之近。我當颯旗。汝等觀我旗齊發。違者必斬。令既下。賊分兵迭進。輒盡斃之。積屍齊柵。日晡時賊傾陣而進。有白馬將馳上下指揮。公擇十卒使潛踰柵外。並發砲殺之。果貴將也。然終日苦戰。士卒疲極。或有從後亡去者。公命作樂。爲戰捷聲以激厲之。士氣復振。昏後賊始退...”

60) 이들 전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민족전쟁통사』 참조.

상기해 볼 때 유리한 방어배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戰例라 할 수 있다.⁶¹⁾

라. 후퇴작전

여러 차례의 공방을 펼친 조선군은 홍명구의 장렬한 전사와 함께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유림은 치열한 전투 끝에 탄약과 화살이 거의 떨어지고 홍명구의 패배로 고립무원이 되어 오래 머물러서는 안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유림은 더 이상의 방어는 아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방어진지내에 산재한 나무를 이용하여 촛불 등을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고, 조총을 나무에 많이 묶되 火繩을 火門(耳藥桶)에 연결시켜 놓은 다음 마침내 목적을 버리고 야음을 틈타 퇴각하여 馬峴⁶²⁾을 넘어 狼川縣(지금의 화천)으로 부대이동을 실시하였다. 火繩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어 불이 火門에 미치는 데도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있어, 총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적은 끝내 그곳이 텅빈 진영임을 알지 못하여 다음날 군사를 정돈하여 다시 진격하였는데 유림은 이미 철수한

61) 한편 김화 백전전투에 앞서 1619년(광해군 11)에 발발한 深河전투가 있는데,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만주의 深河 富車에서 後金の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한 전투로 富車戰鬪라고도 한다. 이 심하전투 이후 조총위주의 단순전술에서 벗어나 야전에서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후금군은 조선 포수의 장점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병 돌격을 바로 하지 않고 일단 말에서 내려서 원거리에서 활을 쏘아 조선의 포수를 혼란시키고 이어 말에 올라 타고서 철퇴와 棍을 사용하여 돌격하여 조선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노영구, 『16~17세기 조총의 도입과 조선의 군사적 변화』, 『한국문화』 58, 2012, 125~126쪽에서 재인용)

홍명구와 유림은 모두 서북지역에서 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과거 심하전투의 대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방어시 조총병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연속적인 사격이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궁수도 사격이 단절되지 않게 적절히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유림 장군의 진영은 청군과 접전시 조총과 활을 이용한 적절한 사격통제를 하여 효과적으로 청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

62) 김화에서 화천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뒤였다.⁶³⁾ 이른바 “임시조총자동사격장치”를 설치하여 소란스럽게 한 후 그 소음을 이용하여 야음을 틈타 완벽한 야간 후퇴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이후 근왕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남한한성으로 이동중 청과 講和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명에 의해 다시 안주로 귀환하였다.

마. 전투결과 및 의의

한편 치열했던 전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定齋集』에 그 기록이 보이는데, “이 싸움에서 적병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적은 그 시체를 모두 거두어 태웠는데 3일이 걸린 뒤에야 끝내고 돌아갔다. 아군의 죽은 자 또한 온 들판에 뒤덮여 있었으며, 홍명구의 屍身은 시체더미 속에서 찾았다. 칼로 이마와 왼쪽 어깨가 찢려 井川 옆에서 죽었는데, 대개 將壇에서 100여 보 떨어진 곳이었다”⁶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군이나 청군 공히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낸 대규모의 전투였다. 전투 후 김화현민들은 조선군의 시신을 한데 모아 장례를 치렀는데 이른바 지금의 전골총이다.⁶⁵⁾ 전골총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는 대형봉분을

63)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文」 “...公曰今日之戰。幸而得勝。而矢丸已盡。不可復戰。不若乘勝勢移陣。間趨南漢。命收軍中破銃。藏藥繫繩。參差其長短而蕪其端。散挂柏林而去。砲聲續發竟夜。賊不敢逼。既明大舉而來。陣已空矣...”.

64) 朴泰輔, 『定齋集』 卷4, 「記金化栢田之戰」, 賊兵死者。不可勝紀。賊盡收其屍。燒之三日而後畢。乃去。我軍之死者。亦被原滿壟。得洪監司屍於積屍中。刃傷額及左眉。死於 井泉之傍。蓋去將壇百許步云。현재 충렬사가 세워진 곳이 홍명구의 시신이 수습된 곳이라 전한다. 즉, 홍명구는 將壇(지휘소)에서 불과 100여보 떨어진 곳에서 시신을 확인하였으니 충렬사 부근 일원이 홍명구가 방어진지를 편성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65) 김화 백전전투에서의 전사자는 당시 현감으로 있던 李徽祚가 고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수습해 전야에 6~7개의 분묘로 만들어 장사지냈는데 이것이 인멸되자 1645년(인조23년) 현감으로 있던 安應昌이 흙을 쌓아 다시 성분하였다고 한다. (『輿地圖書』 江原道 金化 古蹟條) 전골총이 조성된 이후 이

가진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그러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무덤 외에 김화 생창리 일원에 전골총으로 의심되는 무덤이 있다는 연구⁶⁷⁾결과에 따라 최근 이 두곳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결과 이 두곳은 무덤이 아닌 자연상태의 구릉인 것으로 밝혀졌다.⁶⁸⁾

결론적으로 청의 기병은 비교적 기병의 공격에 유리한 홍명구의 진영을 기습공격으로 무력화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유림부대가 포진한 백수봉일원의 방어진지는 돌파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 청군의 우세한 철기병의 파상공세 기동을 좌절 시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방어진지의 편성이다. 둘째,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방어진지 주변으로 목책이라는 장애물을 이용하여 적 기병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것, 셋째, 鳥銃과 弓手를 적절히 배치하여 집중사격의 중단이 없게 한 적절한 사격통제, 넷째,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서 부하들을 독려한 지휘, 다섯째, 적을 기만하는 효과적인 철수작전 등이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백전전투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된다.

곳에서 매년 전사한 날인 정월 28일 고을민들이 제사를 지내 충혼을 위로하였다(『輿地圖書』江原道 金化縣). 최근 병자호란 전적지에 대한 정비복원계획을 수립하던 중 최근까지 전골총이라 불리우던 곳의 지면을 파악해본 결과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702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6.

陸軍士官學校·鐵原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2000.

이재·강성문·권순진, 앞의 책, 2006.

67) 柳在春, 앞의 논문, 2001, 85~91쪽.

68)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철원 김화 전골총 정비사업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14. 이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전골총이 당시의 전골총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하고 있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차후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한 전골총과 함께 전투전적지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를 기대해 본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병자호란시 김화 백전전투 전적지의 위치 및 전투양상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화 백전전투는 병자호란시 김화읍 남쪽의 백전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용인 광교산전투와 함께 병자호란 2대 승전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學界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그 전투사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전투의 명칭에 관해서는 ‘백동전투’와 ‘탑동전투’ 또는 ‘김화전투’ 불려져 왔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결과 淸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 兩軍이 인접한 지역 즉, 백전 일원에서 치열하게 치러진 전투였음으로 앞으로는 “김화 백전전투”라 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투지역은 각종 고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비무장지대 내의 백동 / 탑동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구김화현의 남쪽 현제 읍내리 백수봉 일원 및 성주고개, 충렬사 일원을 백전전투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홍명구군과 유림군의 방어배치면에서 살펴보면 홍명구군은 산성에 입보하여 수세적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決死의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적극적인 전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유림군은 유리한 방어지지의 선점과 효과적인 장애물 설치 및 사격통제, 기만작전으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히 선행되어 향후 호국 및 국난극복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전적지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2015.7.1,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병자호란, 김화, 백전, 청, 홍명구, 유림, 성주고개, 충렬사, 백동전투, 탑동전투

<ABSTRACT>

A Consideration on Gimhwa Baekjeon(栢田) Combat
during the Manchu Invasion of 1636
(Byeongjahoran, 丙子胡亂)

Kwon Soon-jin

This is a study on Gimhwa Baekjeon(栢田) combat during the Manchu Invasion to Choseon(Byeongjahoran, 丙子胡亂). As the Gimhwa Baekjeon combat was a battle that broke out in the whole area of Baekjeon to the south of the former Gimhwahyeon during Byeongjahoran(the Manchu war of 1636), it has been known as the top two combat sites with victory during Byeongjahoran together with the Mt. Gwanggyo combat of Yongin. However, it existed a point that the history of its combat failed to be properly illuminated due to the lack of an interest by both the military and the academic circl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 name of a battle has been called 'Baekdong combat', 'Tapdong combat', or 'Gimhwa combat.' However, it is thought to be likely good to call it as "Gimhwa Baekjeon combat" in the future because of having been the battle that both the armies fiercely fought in the adjacent area, namely, in the whole area of Baekjeon as for a mutual enemy named Cheong(淸). Also, seeing it through many ancient literature records, the battle area is judged to be more appropriate to regard the Baekjeon combat site as the whole area of Baeksubong in Eupnae-ri of the present to the south of the former Gimhwahyeon, and the whole area of Seongju gogae and Chungryeolsa temple, rather than clearly stating it as Baekdong / Tapdong within DMZ(de-militarized zone).

Second, examining it in the aspect of the defense deployment in the

Hong-myeong-gu army and the Yu-rim army, the Hong-myeong-gu army can be said to have been strong in a will to positively fight with burning the bridges with the desperate mind rather than taking the defensive attitude by entering to be protected by fortress. On the other hand, the Yu-rim army could steer this combat to victory with preoccupying the advantageous defensive position, with installing effective obstacle, with the fire control, and with the deception operation.

Finally, it is judged to be necessarily made a battlefield as a site of vivid history with patriotism and a conquest for a national crisis by being imminently preceded a detailed investigation on a battle zone.

Key Words : Byeongjahoran(丙子胡亂), Gimhwa, Baekjeon, Cheong(淸), Hong-myeong-gu, Yu-rim, Seongju gogae, Chungryeolsa, 'Baekdong combat,' 'Tapdong combat,'

